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김 은 주[†]

서울여자대학교

김 지 현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정도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이를 유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준비의 주요 영역을 탐색-결정-실현의 3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대학생 111명에게 각 영역별로 개방형 질문지 형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분류하고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들을 종합한 후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107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총 65문항의 예비척도를 제작하였고 이 척도를 가지고 전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최종 7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를 완성하였다. 척도의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척도의 타당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탐색-결정-실현의 3개 영역을 기준으로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관련변인들과의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준비, 탐색, 결정, 실현, 진로준비유형

* 본 연구는 김은주(2008)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주,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 BD 5F.

Tel : 02-784-1403. E-mail : iamok337@hanmail.net

최근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해마다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과 학교 및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수와 종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 진로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이지연, 2001; 임연, 장흥근, 윤희한, 2005)에 따르면 대학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재성, 정철영, 2006).

실제로 대학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집단상담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통용되는 기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진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김봉환, 2005).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상담가는 내담자가 진로를 선택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Tak & Lee, 2003).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차별화된 진단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진로준비는 그 시기의 진로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과 결정 및 결정에 대한 실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 및 구직행동이라는 단일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장옥희, 2007; 최동선, 2003; Fuqua, Blum & Hartman, 1988; Winer, 1992).

또한 차별적인 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별적인 처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유형화 연구들은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것이고 미결정자의 특성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이에 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고홍월, 2007)으로 인해 상담실제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진로발달과제를 고려하여 진로준비정도를 측정하고 진로미결정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의 문제도 포괄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검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Ginzberg(1951)의 이론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세 시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17세 이후 성인 초기에 이르는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현실기로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현실기는 또한 세 하위 단계들, 즉 자신의 진로를 알아내고 노력하는 탐색단계, 진로선택 및 결정에 관련되어 그 분야를 구체화하는 단계 그리고 자신의 진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전문화단계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로발달과업은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목표설정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Dayton, 1981). 이와 같은 견해는 생애발달에 따른 진로발달의 단계와 각 단계별 특징을 제시하는 Super(1957)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의 단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의 시기는 진로에 대한 탐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탐색을 통해서 자신과 직업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며 결정한 진로에 맞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발달은 대학시기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대학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서 대학입학과 동시에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여 충분한 탐색 없이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진로목표나 결정 없이 소위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은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과제의 주요 측면인 탐색-결정-실현이라는 각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유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로는 불안,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이 보고되고 있다(김봉환, 1997; 김은영, 2001; O'Hare & Tamburri, 1986; Fuqua et al., 1988; Jones, 1989; Wanberg & Muchinsky, 1992; Betz & Hackett, 1987).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탐색-결정-실현에 근거한 각 유형들이 이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각 유형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각 유형에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의 진로발달과업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

해 보는 것이다. 또한 각 진로준비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의 특성을 살펴 실제적으로 차별화된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유형에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일반적인 구인은 무엇인가? 둘째, 개발된 진로준비유형검사는 신뢰롭고 타당한가? 셋째, 개발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결과로 제시되는 유형은 관련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다.

연구 I.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대상 및 절차

학년, 계열 및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국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12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980부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들 자료를 두 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여 이들 중 첫 번째 집단 총 450부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422부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표 1 참조), 남은 두 번째 집단 총 530부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대학생 진로준비의 주요 영역으로 탐색-결정-실현이라는 하위영역을 설정하였고 남녀 대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이를 구체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대상의 성별, 학년, 계열, 지역 분포

	남자 N(%)	여자 N(%)	전체 N(%)	
학년	1학년	24(5.7%)	34(8.1%)	58(13.7%)
	2학년	52(12.3%)	103(24.4%)	155(36.7%)
	3학년	31(7.3%)	61(14.5%)	92(21.8%)
	4학년	60(14.2%)	57(13.5%)	117(27.7%)
계열	인문대	18(4.3%)	74(17.5%)	92(21.8%)
	사회대	59(14.0%)	83(19.7%)	142(33.6%)
	자연대	27(6.4%)	27(6.4%)	54(12.8%)
	공과대	31(7.3%)	26(6.2%)	57(13.5%)
	사범대	27(6.4%)	9(2.1%)	36(8.5%)
	예체능대	5(1.2%)	36(8.5%)	41(9.7%)
지역	서울	38(9.0%)	69(16.4%)	107(25.4%)
	경기도	38(9.0%)	71(16.8%)	109(25.8%)
	충청도	37(8.8%)	29(6.9%)	66(15.6%)
	경상도	24(5.7%)	50(11.8%)	74(17.5%)
	전라도	30(7.1%)	36(8.5%)	66(15.6%)
전체	167(39.6%)	255(60.4%)	422(100%)	

적으로 규명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한 연구에서는 모든 가능한 준비행동들의 범위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 문헌들을 참고하여 검토한 후, 이를 경험적 자료와 함께 종합하였다. 표 2와 같이 하위유목을 분류하고 각 유목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3명의 전문가 집단(진료상담 및 심리검사개발에 종사하는 박사 1명, 박사과정 2명)의 검토를 거쳐 총 107개의 기초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26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35명의 자료에 대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거된 문항의 준거는 ① 평균이 1.5미만 또는 4.5이상으로 극단값을 갖는 문항과 ② 표준편차가 0.75이하로 지나치게 작은 문항(Meir & Gati, 1981) ③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미만인 문항(Gable & Wolf, 1993), ④ 문항 간 상관이 .70을 넘는 문항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65문항이 산출되었다.

분석 방법

요인분석의 방법은 공통요인분석을 선택하였고 공통변량의 초기 값은 다중상관제곱(SMC)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기준과 해석가능

표 2.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한 하위유목 분류

탐색	자기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기정보수집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정보수집 ·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정보수집 · 중요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정보수집
	직업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직업정보수집 · 인터넷 및 매체를 통한 직업정보수집 · 자기탐색활동을 통한 직업정보수집 · 관련분야에 관한 직접정보수집
결정	결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결정 · 결정에 대한 확신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을 위한 공식적인 정보수집 · 실현을 위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설정 · 계획수립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실행 · 공통준비 사항

성 차원에서 의미 있는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얻기 위한 회전 방법으로는 사교 회전(Direct oblimin) 방식을 적용하였다. 통계도구로는 SPSS 15.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95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진로준비유형 예비검사 65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aiser 방식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으로 추출되는 요인 수는 9개였고, 이들 9개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은 64.6%이었다. 스크리 검사결과까지 고려하여 요인의 수

를 9개로 지정한 후, 최종 문항 추출 작업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유형검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스크리닝 검사이다. 문항수가 많은 것은 추후 활용에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데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수를 최소화하였다. 본 문항을 추출하는데 있어 기준은 회전 후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45이하인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수를 맞추고자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만을 선정하여 총 22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선정된 22개 문항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와 scree

표 3. 수정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고유치,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결과

요인번호	고유치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1	6.28	31.39	31.39
2	1.93	9.63	41.02
3	1.54	7.68	48.69
4	1.42	7.12	55.82
5	1.31	6.53	62.35
6	1.04	5.22	67.57
7	0.99	4.94	72.51
8	0.64	3.22	75.73
9	0.63	3.16	78.88
10	0.58	2.90	8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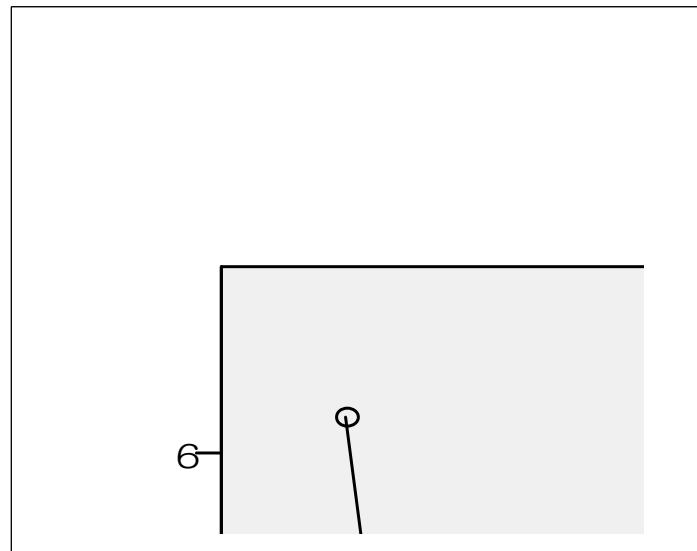


그림 1. 수정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scree plot

plot, 분산비율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7±1개로 각각 지정하여 다시 요인 구조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2개의 문항이 추가로 제거되어 최종 문항 수는 20문항, 요인의 수는 7요인으

로 결정되었다. 최종 20문항의 수정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요인별 고유치, 설명분산 비율, 누적분산비율의 결과는 표 3과 같고, 스크리 검사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4는 수정된 진로준비유

표 4. 수정된 진로준비유형검사에 대한 전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공동분
B3	0.981	0.349	0.310	0.197	0.339	0.211	0.263	0.975
B4	0.723	0.389	0.354	0.254	0.401	0.315	0.415	0.566
A3	0.670	0.375	0.363	0.187	0.345	0.266	0.235	0.472
B1	0.400	0.970	0.301	0.161	0.370	0.388	0.259	0.947
b2	0.356	0.698	0.161	0.181	0.275	0.362	0.185	0.504
h4	0.373	0.264	0.958	0.313	0.383	0.292	0.323	0.919
H1	0.305	0.169	0.728	0.291	0.282	0.222	0.265	0.535
H2	0.314	0.282	0.559	0.263	0.320	0.357	0.357	0.374
I2	0.258	0.180	0.355	0.863	0.324	0.221	0.341	0.753
i12	0.188	0.119	0.234	0.836	0.243	0.163	0.266	0.704
I1	0.189	0.194	0.305	0.781	0.316	0.342	0.340	0.633
P2	0.400	0.381	0.379	0.252	0.823	0.323	0.369	0.699
P3	0.371	0.320	0.348	0.284	0.766	0.240	0.436	0.599
P4	0.233	0.160	0.187	0.324	0.582	0.284	0.445	0.396
C2	0.229	0.333	0.238	0.188	0.231	0.727	0.223	0.531
C4	0.193	0.260	0.221	0.212	0.212	0.698	0.222	0.490
C8	0.248	0.360	0.251	0.176	0.347	0.573	0.246	0.365
s11	0.283	0.207	0.262	0.243	0.432	0.297	0.805	0.655
S6	0.256	0.178	0.266	0.314	0.344	0.200	0.677	0.467
S4	0.307	0.258	0.386	0.295	0.451	0.268	0.586	0.405

형검사의 전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고 표 5에 제시된 문항들은 진로준비유형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들이다.

표 5를 참고로, 진로준비유형검사 각 요인의 이름을 붙이면, 요인 1은 프로그램을 통한 탐색, 요인 2는 심리검사를 통한 탐색, 요인 3은 진로정보수집을 통한 탐색, 요인 4는 결정, 요인 5는 실현을 위한 정보수집, 요인 6은 자기성찰을 통한 탐색, 요인 7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및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문항들이 .5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고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도 $\alpha=.70$ 이상으로 각 요인들에 대한 측정척도가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대학생의 진로준비요인들의 척도 간 상관은 $r=.168$ 에서 $r=.509$ 로 요인들 간에 서로 변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수정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요인별 문항

요인	문항내용
요인1	E3 나에게 적합한 직업분야를 알기 위해 직업탐색과 관련된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다.
	E4 직업탐색과 관련된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다.
	A3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자기탐색과 관련된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다.
요인2	B1 나에게 대해 알 수 있는 심리검사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b2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요인3	h4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과 그 선배들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H1 전공 선배들에게 졸업 후 진로 및 직업분야에 대해 물어보았다.
	H2 나는 교수님에게 졸업한 선배들이 진출한 진로 및 직업분야에 대해 물어보았다.
요인4	I2 나는 내가 선택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i12 내가 선택한 졸업 후의 나의 진로는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진로이다.
	I1 나는 졸업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였다.
요인5	P2 나는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취업 및 진학) 분야에 대한 취업/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P3 나는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취업 및 진학) 분야에 관한 합격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해 취업관련부서 또는 진학관련부서를 방문해 보았다.
	P4 나는 졸업 후 나와 유사한 진로분야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및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C2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노트에 정리해 보았다
요인6	C4 나는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리스트해 보았다.
	C8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자아발견에 관한 도서들을 읽어보았다
	s11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에 입문하기 위해 지원 또는 시험에 응해 본 적이 있다.
요인7	S6 나는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입문하는데 유리한 관련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S4 나는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입문하기 위해 필요한 또는 유리한 관련 활동(인턴십, 수련활동, 동아리, 공모전 등)을 하고 있다.

표 6. 요인별 신뢰도 계수, 평균, 표준편차 및 요인 간 상관 (N= 422)

요인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요인1	.82	6.251	3.017	-						
요인2	.80	4.498	2.161	0.429	-					
요인3	.79	7.220	3.049	0.387	0.269	-				
요인4	.86	9.675	2.913	0.234	0.168	0.326	-			
요인5	.74	6.045	2.892	0.405	0.359	0.374	0.330	-		
요인6	.70	7.102	2.888	0.285	0.422	0.307	0.265	0.339	-	
요인7	.73	6.777	3.038	0.328	0.229	0.340	0.366	0.509	0.317	-

연구 II.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은 전국 12개 대학교 남녀 총 980명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무선 할당된 45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은 530명의 자료 중 성실하게 응답한 총 516명(남 209명, 여 30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는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탐색-결

정-실현의 고차적 3요인을 가정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의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7요인을 다시 3개의 고차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통계 패키지는 AMOS 7.0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였고 모형 적합도 지수로는 TLI, RMSEA, χ^2 , CFI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을 수용할 만한 부합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 .05는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TLI	CFI	RMSEA(LO 90/HI 90)
7요인	330.138	149	.937	.951	.049 (.042/ .056)
고차적 3요인	398.790	166	.927	.937	.052 (.046/ .059)

의 적합도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표 7을 보면, 전반적인 부합지수는 진로준비유형검사의 7요인 모형 구조와 고차적 3요인 모형구조인 탐색-결정-실현을 설정한 모형구조가 모두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7요인 및 고차적 3요인 모형의 표준화 계수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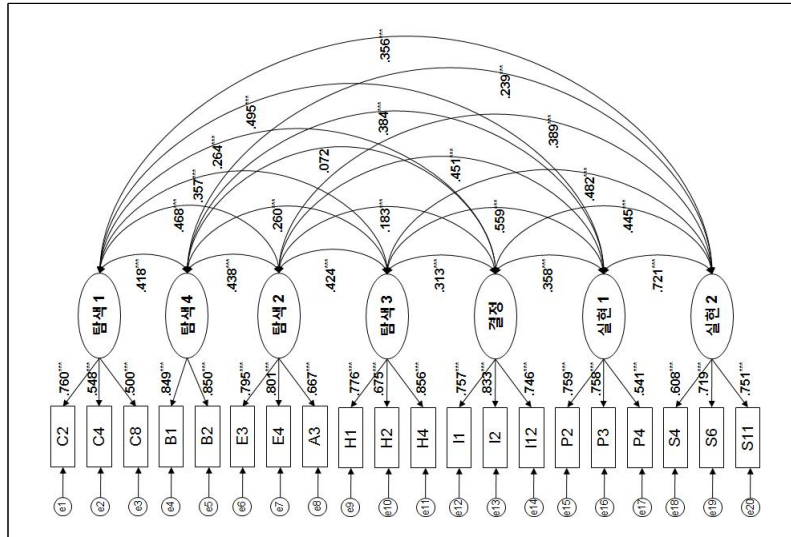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7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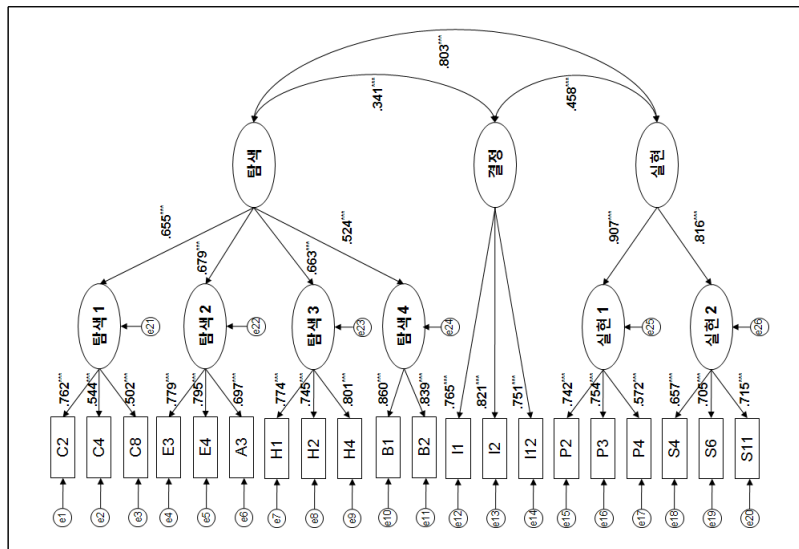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고차 3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III. 타당화와 유형화

연구 대상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한 타당화 및 유형화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총 980명의 자료 중 성실하게 응답한 총 959명의 자료가 모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진로준비유형검사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는 7개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70 ~ .86이었다. 또한 10주간의 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g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것(Cronbach's $\alpha = .83$)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

진로태도 성숙도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여 5점 척도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다섯 가지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75~.88였고 본 연구

에서는 .68~.89이었다.

특성불안 검사

특성불안 검사는 Spielberger(1970)의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변안한 것 중에서 특성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4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정택, 신동균(197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척도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척도는 Harren(1984)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검사를 고향자(1992)가 변안하고 타당화한 것 중, 합리적 유형척도만 사용하였다. 5점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향자(1992)가 보고한 Cronbach's α 는 .76, 본 연구에는 .88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는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단축형을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직업미결정척도

직업미결정척도는 Osipow(1987)의 진로결정척도를 기반으로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77~.89

이었다.

분석방법

우선 최종 확정된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문항 적절성과 동질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분석과 내적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최종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가 대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로준비유형검사 총점이 진로성숙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 알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성이 가정된 측정도구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탐색-결정-실현을 근거로 한 개념적 유형구분의 경험적 확인을 위해 8가지 각 유형의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8개 각 유형들이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척도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항분석 및 신뢰도분석결과

진로준비유형검사의 문항분석 결과는 문항 평균은 1.72~3.40, 표준편차 범위는 1.03~1.38로 Meir et al.(1981)가 제안한 적절한 문항의 평균은 1.5이상과 4.5미만, 표준편차는 0.75이상의 범위를 모두 충족하였다. 한편 문항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왜도와 첨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Huck & Cormier(1996)가 양호한 문항 분포의 범위로 제안된 ± 2 범위 이내로, 왜도 범위는 -0.09~1.45이고, 첨도 범위는

-1.10~1.30으로 나타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기술통계치, 문항분포는 통계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43~.63이었고 문항-척도 총점 간 상관은 .50~.89, 각 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은 .74~.92로 각 문항들은 다른 요인에서보다 해당되는 요인의 총점과의 상관값이 높게 나타났다(표 8 참조). 한편 진로준비유형검사의 전체 내적합치도(α)는 .87, 요인 1의 α 는 .82, 요인 2는 .80, 요인 3은 .79, 요인 4는 .86, 요인 5는 .74, 요인 6은 .70, 요인 7은 .73이었다. 문항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0명을 대상으로 10주 간격으로 측정한 탐색-결정-실현의 각 하위척도별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는 .77~.90 사이였고 진로준비유형검사 총점의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는 .86($p < .01$)으로 두 검사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화 분석결과

진로준비유형검사가 실제 진로발달 수준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는 진로발달수준을 반영하는 진로성숙 정도를 유의미($F(1,930) = 186.884, p < .001$)하게 예측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 관계성이 가정된 다른 진로 관련 심리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준비유형검사 및 그 하위요인과 진로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합리적 의사결정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직업미결정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8. 한국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상관분석결과 (N=959)

척도	요인	문항	충점	탐색합	결정합	실현합	요인 1	요인 2	요인 6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7
탐색	요인 1	1 E3	0.53	0.61	0.15	0.31	0.89	0.29	0.22	0.29	0.15	0.28	0.27
		2 E4	0.61	0.67	0.16	0.40	0.83	0.37	0.32	0.35	0.18	0.37	0.34
		3 A3	0.56	0.65	0.19	0.31	0.83	0.32	0.31	0.33	0.19	0.30	0.25
	요인 2	4 B1	0.53	0.62	0.13	0.31	0.36	0.92	0.34	0.26	0.13	0.31	0.24
		5 b2	0.48	0.57	0.11	0.27	0.34	0.92	0.30	0.19	0.11	0.28	0.20
	요인 6	6 C2	0.50	0.57	0.18	0.28	0.27	0.30	0.81	0.25	0.18	0.26	0.23
		7 C4	0.44	0.50	0.18	0.24	0.22	0.24	0.75	0.21	0.18	0.24	0.19
		8 C8	0.47	0.52	0.15	0.28	0.28	0.25	0.74	0.21	0.15	0.28	0.21
	요인 3	9 h4	0.62	0.64	0.27	0.42	0.35	0.23	0.27	0.88	0.27	0.37	0.36
		10 H1	0.53	0.56	0.26	0.34	0.28	0.14	0.19	0.86	0.26	0.31	0.30
		11 H2	0.57	0.62	0.20	0.37	0.34	0.25	0.29	0.79	0.20	0.34	0.32
결정	요인 4	12 I2	0.52	0.29	0.89	0.35	0.20	0.09	0.19	0.30	0.89	0.29	0.32
		13 i12	0.43	0.20	0.88	0.27	0.14	0.09	0.15	0.18	0.88	0.23	0.24
		14 I1	0.53	0.31	0.85	0.38	0.19	0.16	0.24	0.28	0.85	0.34	0.33
실현	요인 5	15 P2	0.63	0.49	0.23	0.70	0.35	0.32	0.31	0.39	0.23	0.81	0.42
		16 P3	0.61	0.44	0.25	0.71	0.32	0.27	0.27	0.38	0.25	0.81	0.45
		17 P4	0.54	0.32	0.30	0.69	0.24	0.19	0.24	0.23	0.30	0.80	0.42
	요인 7	18 s11	0.56	0.35	0.25	0.73	0.27	0.17	0.23	0.30	0.25	0.44	0.82
		19 S6	0.54	0.31	0.32	0.70	0.24	0.15	0.19	0.28	0.32	0.39	0.82
		20 S4	0.59	0.41	0.26	0.70	0.29	0.26	0.24	0.36	0.26	0.45	0.77

표 9. 진로준비유형검사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진로준비전체	탐색	결정	실현
진로성숙	.409***	.225***	.674***	.3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20***	.384***	.549***	.407***
직업미결정	-.390***	-.264***	-.524***	-.280***
합리적인사결정	.346***	.312***	.241***	.253***

N = 95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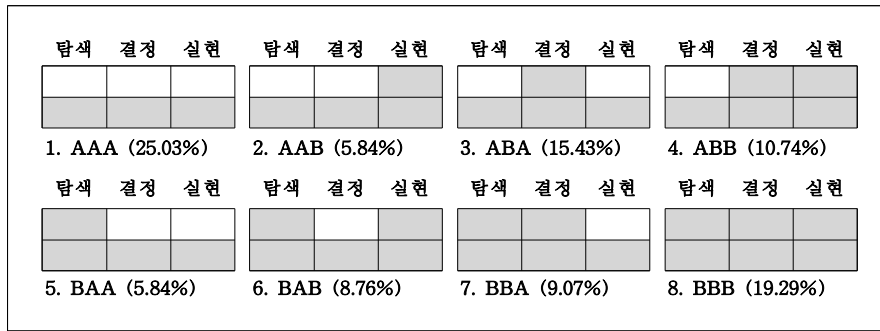


그림 4. 탐색-결정-실현에 근거한 8가지 유형의 틀 (N=959)

표 10. 유형별 관련 심리적 변인들과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관련변인	유형	1.AAA	2.AAB	3.ABA	4.ABB	5.BAA	6.BAB	7.BBA	8.BBB
진로 성숙도	평균	153.31	159.61	174.61	179.91	159.70	159.36	178.00	178.13
	표준편차	15.14	15.44	15.20	16.83	14.66	13.54	17.31	19.06
	Scheffè	1.2.5.6 < 3.4.7.8		F(7,924)= 60.421, p = .000					
자아 존중감	평균	34.46	35.88	37.58	38.83	36.46	35.85	39.53	38.55
	표준편차	6.48	6.00	5.85	5.19	5.91	6.09	6.45	6.09
	Scheffè	1<3.4.7.8, 6<7		F(7,948)= 12.105, p = .000					
합리적 결정	평균	34.61	36.45	35.89	36.76	37.35	37.02	38.86	39.72
	표준편차	5.84	5.34	5.37	6.26	5.54	6.49	5.99	5.44
	Scheffè	1.3<7.8, 4<8		F(7,924)= 13.762, p = .000					
진로결정 효능감	평균	76.64	81.75	85.60	90.22	82.14	83.90	90.59	93.38
	표준편차	11.04	8.67	11.07	10.56	10.12	11.72	10.34	12.00
	Scheffè	2.5.6<4.7.8, 1<3<8, 1<6<4.7.8		F(7,932)= 42.083, p = .000					
직업 미결정	평균	59.64	56.33	48.92	45.34	54.95	53.89	44.01	45.89
	표준편차	10.85	10.13	11.14	10.02	9.65	9.85	9.95	14.70
	Scheffè	4.7.8<1.2.5, 4<6<1, 3<1.2		F(7,935)= 36.982, p = .000					
특성불안	평균	49.40	47.80	46.16	45.33	47.29	46.95	43.06	43.93
	표준편차	8.24	8.19	8.56	7.86	7.58	8.47	8.78	9.71
	Scheffè	4.7.8<1		F(7,945)= 8.805, p = .000					
전공 만족도	평균	3.32	3.52	3.69	3.97	3.32	3.23	3.88	3.95
	표준편차	0.96	0.97	1.04	1.10	0.81	0.94	1.00	1.03
	Scheffè	1.6<4.7.8, 5<4.8		F(7,950)= 11.592, p = .000					
진로 스트레스	평균	3.70	3.55	3.41	3.44	3.86	3.70	3.66	3.67
	표준편차	0.865	0.829	0.888	1.045	0.819	0.818	0.876	1.040
	Scheffè	-		F(7,950)= 2.682, p = .009					

N = 959, Scheffè: AAA=1, AAB=2, ABA=3, ABB=4, BAA=5, BAB=6, BBA=7, BBB=8.

유형화 분석결과

탐색-결정-실현의 각 하위척도별 평균 즉 T 점수 50점을 기준으로 50보다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A, 50보다 높을 경우에는 B라고 명명하여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8가지 유형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유형들이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10과 같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스트레스는 현재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와 현재 자신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5점 Likert 척도 각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점수는 진로성숙도, 자아 존중감, 합리적 결정, 진로결정 효능감, 직업미결정, 불안, 전공만족도 및 진로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근거하여 탐색-결정-실현의 각 하위영역별로 최종 하위유목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발된 문항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7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개발된 본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결과,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 검사 도구로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결과에 근거

하여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6은 탐색, 요인 4는 결정, 요인 5와 요인 7은 실현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7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준비유형검사가 표본에 종속되지 않고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정된 진로준비유형검사의 7요인 구조와 탐색-결정-실현의 고차 3요인 구조가 잘 수렴되어,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진로발달수준을 예측해주는 진로성숙과 진로준비유형검사 총점과의 관계를 통해 진로준비유형검사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인 진로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미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들과의 상관결과를 통해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진로준비유형검사 결과, 탐색-결정-실현의 3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별 빈도분석과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관 및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각 유형들의 서로 다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유형별 불안정도는 진로결정 상태를 예언하는데 특성불안이 유의한 기여를 한다고 한 O'Hara et al.(1986)의 결과에서처럼, 결정의 점수가 낮은 4개 유형들의 불안점수가 나머지 4개유형의 불안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 역시 결정이 높은 유형들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별 합리적 결정 정도의 차이는 결정척도보다는 탐색척도와 상관이 더 높고 탐색과 결정이 모두 높은 BBA, BBB유형이 ABB, ABA유형보다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정보탐색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유형을 지닌 사람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진로계획과 정보탐색을 한다는 Jepsen과 Dilley(197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ABB유형과 BBA유형은 진로 준비정도는 비슷할 수 있으나 ABB유형의 경우 탐색이 낮은 학생들로 BBA유형의 학생들과는 달리 우선 필요한 진로개입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이고, 이 경우 비록 진로를 결정했지만 그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반면 BBA유형의 학생들은 실현이 낮은 학생들로, 이 경우에는 학년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학년 학생이라면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겠다.

이렇듯 각 유형이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의 특성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는 개인의 진로준비정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각 유형의 개별적인 특성,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해 어떤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유형별 관련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표9)를 보면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미결정이 모두 결정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결정보다 탐색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형별 관련 심리적 변인들과의 일원변량분석 결과(표10)도 대부분 결정이 높은 ABB, ABB, BBA, BBB유형이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합리적 결정척도에서 탐색이 낮은 AAA, ABA유형이 BBA, BBB유형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 있어 탐색 및 실현과 관련이 높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에 근거하여 진로결정뿐만 아니라 탐색과 실현의 3가지 차원을 모두 조합하여 이를 토대로 진로준비정도 뿐만 아니라 준비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의 문제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는 탐색-결정-실현의 각 하위척도의 문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진로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탐색과정과 실제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현과정에서 개인의 행동적인 측면을 고려했고, 결정의 하위척도는 진로결정여부와 이에 대한 확신정도의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진로발달의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진로상담 실제에서의 활용측면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는 탐색-결정-실현의 각 하위척도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진로준비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와 각 하위척도별 준비정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한 8가지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별적인 진단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가 가능한 도구이다. 특히 본 검사의 진단적 특성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결정한 학생들에게도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서비스

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 학생으로서 무선적으로 대상을 표집한 것이 아니라 편의표집한 표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고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집단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 및 유형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와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로 진로성숙, 자아존중감,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결정 효능감, 직업미결정, 불안 등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만으로 8개 유형의 차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각 유형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성과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개입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는 탐색-결정-실현의 각 하위척도의 평균점수 즉, T점수 50점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나누어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각 하위척도의 평균점수는 표집에 참여한 남녀 및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는 성차 및 학년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및 학년차이를 고려한 기준의 개발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T점수 50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진로상담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유형검사를 개발한 것은 척도개발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별적인 진단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 구분한 8가지 각 유형의 구별되는 특성들을 확인하고 각 유형의 효과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전략을 개발하며,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고재성, 정철영 (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 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4), 141-160.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홍월 (2007).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성숙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보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보환 (2005). 학과 및 직업카드를 활용한 단기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직업교육 연구*, 24(3).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69-75.

김충희 (1995). 해외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지연 (2001). 고등교육단계에서 효율적인 진로 지도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 언, 장홍근, 윤희한 (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육희 (2007). 대학생의 진로관련 효능감이 직업 탐색행동 및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 한국 심리학회 2001년도 연차대회 학술 발표 집, 483-48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tz, N. E., & Hackett, G. (1987). Practical issues in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Dayton, C. W. (1981).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4), 321-333.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4-373.
- Gable, R. K. & Wolf, M. B.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2nd ed.)*,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
- Ginzberg, E. (1951). Toward a theory of a occupational choic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30(8), 491-494
-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uck, S. W., & Cormier, W. G. (1996).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2nd ed.)*, New York: Harper Collins.
- Jepsen, D. A., & Dilley, J. S. (1974). Vocational decision-making models: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 331-349.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 Meir, E. I., & Gati, I. (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011-1016.
- O'Hara,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55-264.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k, J. K., & Lee, K. H. (2003, in press).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원 고 접 수 일 : 2010. 05.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20

게 재 결 정 일 : 2010. 08. 13

Winer, J. L. (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369-375.

Development of Career Preparation Type Inventory for Korean College Students(K-CPTI)

Eun Ju Kim

Seoul Women's University

Ji Hyeon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K-CPTI for college students.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three dimensions(i.e., exploration_decision_actualization) of career developmental tasks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tems was evaluated.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in 422 college students then seven factors with 20 item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both the seven-factors structures and the three higher-order factors structures with seven lower-order fac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516 college students were performed. Item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Predictive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T scores of the 3 higher-order factors(exploration _decision_actualization), K-CPTI classified college students into eight types. The result of analysis between eight types and the related variables confirmed that all variable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type.

Key words : college student, career preparation, exploration, decision, actualization, career preparation type